

'공간의 기억, 문화로 채우다'

남원시,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등 도예 체험 프로그램 체험객 대폭 늘어

남원시는 시가 주최하고 (사)남원국제도자예술연구소가 주관한 '공간의 기억, 문화로 채우다' 주제의 도예체험에 신청자가 몰리며 체험객이 대폭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도자기의 다양한 기법으로 진행된 '누구나 도예 체험'에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의 도예 작가들이 함께 참여, 특색있고 재미를 더한 나만의 도자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미순 작가와 함께하는 도자기 인형 만들기에는 중앙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참여, 특별히 뛰어난 집중력과 창의력을 보인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의 엄청난 재능이 발견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완성된 작품은 어디에 전시해야 하나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등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다.

교사는 "조형 예술의 재미를 듬뿍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줘서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도 제45기 남원시민도예대학 수강생이 만든 공동 프로젝트 '도자 물고기'에도 지역 작가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며 풍성한 문화



남원시가 주최하고 (사)남원국제도자예술연구소가 주관한 '공간의 기억, 문화로 채우다' 주제의 도예체험에 신청자가 몰리며 체험객이 대폭 늘었다.

가 있는 주간에 되었다.

한편 도예 관계자는 "유아 청소년들이 도예 체험으로 조형성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색적인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심수관 도예전

시관 주변의 도예 공원에서도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다원예술 - 웅알스 히스토리 쇼'

24일 완주문화예술회관서 마술·마임·저글링 등 공연

완주군은 오는 24일 오후 5시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다원예술 - 웅알스 히스토리 쇼' 공연을 한다.

다원예술 '웅알스 히스토리 쇼'는 멤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기와 장기를 공연에 녹여 화려하고 좀 더 코믹하게 준비된 공연이다.

기존의 4명 체제의 공연에서 웅알스 멤버 전원이 출연하여 다채로워지면서 볼거리의 다양함이 추가 되었다. 마술과 마임, 저글링이 합쳐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웅알스의 슬로건인 '듣지 못하는 이에게 보는 즐거움을 주고, 보지 못하는 이에게 듣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을 허물고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문화적 힐링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웅알스 히스토리 쇼'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



하는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선정 작가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평가 '우수상'

작년 이어 올해도 수상 '쾌거'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지역운영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전국 공연예술연습공간 중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은 안전한 시설 및 효율적인 행정 운영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작년 장려상에 이어 올해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은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은 이용객의 원활한 업무 소



통과 대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매년 높은 대관율과 이용자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평소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연습공간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며, 예술인과 지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은 전주시가 옛 여의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2016년 6월 개관, 저렴한 대관료와 쾌적한 환경으로 지역 내 많은 공연예술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jcf.or.kr>) 또는 전화(063-213-201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서 최현미 일개인전 '시선의 쓸모'

최현미 작가가 22~27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 2관에서 '시선의 쓸모'를 주제로 일개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가에 따르면 '시선의 쓸모'는 시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나 무게에 따라 유용하기도 무용하기도 한 시선의 가치를 향한 의미, 의미를 향한 가치를 표현하고 싶었다. 작가는 꿈에게 자신만의 시선을 담고 싶어 머리, 팔, 손, 몸통, 다리, 발, 동작 외에도 패브릭(헤어리향 모헤

어), 트리밍 등에서 자신의 심리적 시선에 대한 감성을 담고자 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이 오직 한 캐릭터와 소통하는 시선에서 새로운 결합이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된다.

작품이 다른 주인을 만나면, 다른 시선의 쓸모에 따라 미완성을 시작해 그 이후에 시선이 머물다 떠나기를 반복할 것이다. 시선의 쓸모는 가치가 발현되는 때와 곳(마치 시절인연을 만나는 것처럼)에 대한 의문이 이번 전시의 시

작이었다. 회화 작업 또한 마찬가지로 작업에 대한 오롯한 헌신함을 원했으나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언제나 후회와 미련이 작가 자신에게 숙제였음을 확인하게 됐다.

이번 전시에서 완성된 회화와 조형물(공인형)은 자신만의 소통에서 시작했다. 누구든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기 전에는 그 시선에 대해 사소한 것 하나도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잊히거나 버려진 시선 그리고 떠나간 시선 또한 그들의 곡절 있는 쓸모(가치, 이유, 목적)가 담긴다는 생각에서 '시선의 쓸모'라는 주제가 됐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립국악단, '찾아가는 국악공연' 펼친다

남원시립국악단에서는 문화 소외지역인 농촌 마을을 찾아가 특별한 국악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운봉음을 시작으로 금지, 산동, 아영, 대강 등 관내 다섯 개 읍면지역을 돌며 참극, 민속악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올 한해 화인당 야외무대에서 선보인 '가인출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춘향전의 스토리에 단원들의 수준 높은 판소리와 익살스러운 연기가 더해져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작품이다.

일정은 11월 23일과 24일 오후 3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 12월 7일과 8일 오후 3시 아영면 행복나눔센터, 12월 2일 오후 3시 아영면 행복

나눔센터, 12월 16일 오후 3시 대강면 행복문화센터 등에서는 기악합주, 무용, 판소리, 민요 등 풍성한 '민속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특히, 경쾌한 경기민요를 기악합주곡으로 재구성한 기악합주 경기민요연곡을 시작으로, 남원시립국악단의 단장을 지낸故임이조 명무의 무용작품(교향살풀이/한량무),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판소리 눈대목(춘향가 중 사랑가/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준비했으며, 마지막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익숙하고 빠른 장단의 흥겨운 민요로 마무리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으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공연은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김선경 개인전 '민화에 빠지다II'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관에서 김선경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민화(民話)에 빠지다II'라는 주제로 현대적 감각으로 그 의미를 재해석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익산 한바람 주민센터에서 사회 복지사로 일하면서 10명의 발달장애인과 미술 활동을 통해 남긴 작품 10점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작가는 민화나 전통 문양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고 스토리텔링을 구사하는 작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적 구성성을 추구함으로써 현대에 존재하는 한국적 미의식과 근원을 추적하여 시간과 역사성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름대로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철학을 담아낸다. 자유롭게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해학과 풍자를 통해 가식이나 난해한 표현을 피하고 재기발랄한 기법과 웃음을 선사한다. /장은성 기자



세만금과 함께 성장하는 군산도시가스

축! 전주매일 창간

매월 4일은 우리집 가스시설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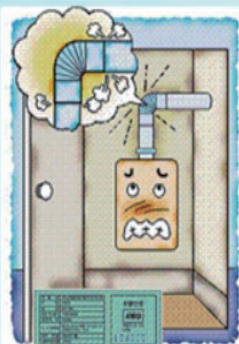
EOCS(Excavation One-Call System)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
(www.eocs.or.kr)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굴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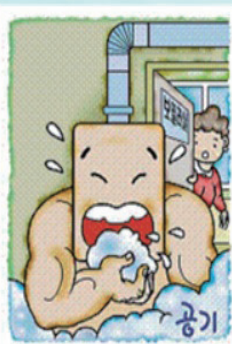
Tel : 1644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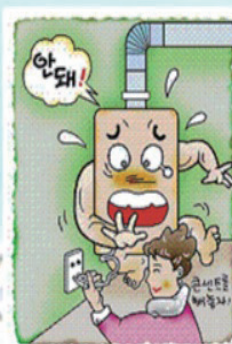
급기구·환기구 개방



배기통 불량시 교체



보일러실문 닫고 사용



동절기엔 전원연결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운수보일러를 설치하는 시공자는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2013년 8월부터 안전점검 SMS 사전 안내서비스(수용가의 안전점검 월을 고객의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로 사전에 안내)를 시작하였습니다.

◆ 안내를 희망하시는 고객은 홈페이지 '고객마당 - 안전점검SMS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안전점검 SMS 사전안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